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공급을 위한 “바이오산업 인력 양성 민·관·학 업무협약”

- 31일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대-바이오 9개 기업·기관과 업무협약 -
- 폴리텍대, 바이오기업 위탁개발생산(CDMO) 특화 인력 양성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은 10월 31일(화) 16시, 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서울 용산구)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기관 9곳*과 ‘바이오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롯데바이오로직스, 엔젠바이오, 와이바이오로직스, 케이셀, 큐로셀, 툴젠,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프로티움사이언스, 한국바이오협회

이번 협약식은 공공 직업교육훈련기관인 폴리텍대학을 중심으로 신산업 훈련을 강화하고 현장의 인력 수요에 차질 없이 대응하는 한편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바이오 기업·기관과 폴리텍대학은 ▲위탁개발생산(CDMO) 등 바이오 분야 특화 교육 훈련과정 공동 개발 및 운영 ▲기술 지원 및 공동 연구 활성화 ▲상호 시설·장비 활용 ▲폴리텍대학 졸업생 채용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현장 수요에 맞는 특화 훈련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바이오와 같은 신성장 분야 산업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바이오 등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첨단 분야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청년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을 채용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바이오 기술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협약식에 참여한 이원직 롯데바이오로지스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이 “바이오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함”이라면서 “교육 현장과 산업체 간의 간극을 좁히는 데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임춘건 폴리텍대학 이사장 직무대리는 “학과 신설·개편 확대를 통한 첨단 분야 훈련 기반시설 확충, 청년층의 훈련 기회 확대 등 속도감 있는 대응으로 현장 수요에 맞는 인력을 적기에 양성하겠다.”라며 “기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협력 모델도 지속해서 확산해 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폴리텍대학은 내년부터 롯데바이오로지스와 협력해 위탁개발생산(CDMO) 특화 인력을 키운다. 기업의 요구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을 설계해 특화 교육훈련을 하면, 기업에서 참여 학생을 우선 채용하는 형태다. 폴리텍대학은 2년제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바이오캠퍼스(충남 논산)의 바이오 배양 공정학과 25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폴리텍대학은 바이오산업 인력 양성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대학 정보 공시 기준 최근 3년(2019~2021년) 바이오캠퍼스(학위과정)의 취업률은 88.6%다. 하이테크과정(비학위)을 운영하는 성남 생명정보시스템학과, 분당 생명의료시스템학과, 광명 바이오의약시스템학과의 올해 평균 취업률은 86.0%다. 2021년(81.6%), 2022년(85.2%)에 이어 지속해서 올랐다. 하이테크 과정은 청년 구직자를 고급 기술인력으로 키우는 신산업·신기술 분야 특화 훈련이다.

- 붙임 1. 행사 개요
- 2. 장관 인사말씀

담당 부서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정책과	책임자	과 장	금정수 (044-202-7269)
		담당자	사무관	진혜숙 (044-202-7274)
담당 부서	한국폴리텍대학 홍보부	책임자	부 장	구연욱 (032-650-6740)
		담당자	과 장	이채민 (032-650-6742)



붙임 1**행사 개요**

□ 일 시: 10.31.(화) 16:00~17:20(80분)

□ 장 소: 폴리텍 서울정수캠퍼스(서울 용산 보광로 73)

□ 참석자: 고용부, 폴리텍, 바이오기업 대표 등 약 45명

○ (고용부) 장관, 직업능력정책국장 등

○ (폴리텍) 이사장 직무대리, 기획국장, 바이오캠퍼스 학장 등

○ (기업·기관)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 8개 바이오 기업* 대표 등

* 이원직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김광중 엔젠바이오 부사장, 박영우 와이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이종성 케이셀 대표이사, 김건수 큐로셀 대표이사, 이병화 툴젠 대표이사, 현덕훈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안용호 프로티움사이언스 대표이사

□ 세부 행사일정 ※ 행사 전체 공개

시 간	소요 시간	내 용	비 고
16:00~16:50	50'	■ 협약식 - 참석자 소개 - 장관·기업대표(롯데) 인사말씀 - 협약설명, 서명, 사진 촬영	학생회관 2층 세미나실
16:50~17:20	30'	■ 간담회 - 바이오 분야 인력양성 의견 청취	
17:20		■ 행사 종료	

〈모두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오늘 고용노동부, 바이오기업, 한국폴리텍대학 간
“바이오분야 기술인재 양성과 맞춤형 교육을 위한
민관협력 업무협약식”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뜻깊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부회장님
롯데바이오로직스 이원직대표이사님을 비롯한
협약기업 대표님
한국폴리텍대학 임춘건 이사장 직무대리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변화와 인력양성의 중요성〉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코로나 19를 계기로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에서 기업간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졌으며,
각국도 미래에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보건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분야를
국가 경쟁력 및 안보의 중요 이슈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산업의 대전환기일수록
인적자원개발이 더욱 강조됩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오늘날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도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부단한 노력과 투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폴리텍대학과 바이오그룹의 역할과 업무협약의 의미〉

한국 폴리텍대학은
1968년 국립중앙직업훈련원으로 출발한 이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직업훈련기관으로서,
그간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를 해왔습니다.

여기 모이신 바이오협회와
롯데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8개 기업은
바이오제약 분야에서 경쟁력을 입증해가고 있는
이 분야의 선도 기업들입니다.

폴리텍대학과 바이오제약 분야 기업간에 체결하는
인재양성 업무 협약은
바이오산업 발전에 큰 의미를 갖습니다.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과 고용 창출을 통해
바이오산업이 대한민국의 신(新)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는데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우리의 미래이며, 우리나라를 젊어지고 갈
청년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바이오와 같은 신성장분야 산업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과 같은

산·학·관 협력을 통해
청년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을 채용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정부의 지원〉

지난 상반기에는

바이오 헬스 분야의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백신, 의약, 융합바이오 등
신성장 분야 인력을 양성하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23.2.28. 대통령실, '바이오헬스, 제2반도체 산업으로 육성'

의료, 건강, 돌봄서비스를 디지털기반으로 전환하도록 집중투자 / 데이터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벤처 등이 몰리는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 등

고용노동부에서도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을
디지털분야에서 바이오 등 첨단산업분야로 확대하고
훈련인원도 대폭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오늘 바이오기업과 폴리텍대학 간의
맞춤형 인재양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오늘 업무협약을 계기로
인력양성 전문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과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 함께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머리를 맞대면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더없이 기쁜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주신
기업체 대표 및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행사를 위해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